



# 제주 경찰, 전국 ‘자치경찰제’ 선도한다

도, 2006년 자치경찰제 최초 도입… 국가경찰과 동행  
자치경찰제 2028년 전국 시행… 도-경찰청, 업무협약  
“112신고 공동 대응·인력 지원 등 통해 지역 치안 책임”

제주 국가·자치경찰이 정부 국정과제인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둔 상호 협업체계를 강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선도한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와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2006년 최초 체결 이후 2014년 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112신고에 대한 요청 시 공동 대응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자치경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을 구체화하고 중점 수행 사무도 기존 ‘장소’ (오일장, 관광지, 공항만, 한라산 등 8개 항목) 중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17개 항목) 중심 체계로 전면개편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만들어진 사무분담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개정이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검토가 본격화 되면 제주경찰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은 지난 4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전국 자치경찰제 2028년 전면 시행 대비해 ‘제주 TF 운영단’ 회의를 개최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청년들과 소통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일 제주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제주 청년으로 구성된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 투자는 ‘자율주행’도, 전문기업 (주)라이드플렉스에 20억 투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2호의 첫 투자 대상으로 도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주)라이드플렉스를 선정하고 20억원을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투자한 라이드플렉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자체 자율

주행 플랫폼과 축적된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투자금 연구개발(R&D) 강화, 인력 확충, 사업 고도화 등 기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

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투자가 도가 중점 육성하는 미래 모빌리티·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1호 및 2호 펀드를 연계 운용 중이며, 올해 3호 펀드 조성과 내년 4호 펀드 조성을 통해 연속적인 투자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제446회 임시회 개회사 “도의원 정수 축소, 견제·감시 기능 위축”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 제주도의원 정수 축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5일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 때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거진 제주도의원 정수 감축 문제에 대해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300여 건의 방대한 특례 사무를 다루고 있다”며 “이러한 고도의 특수성과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제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급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맞춰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의장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제주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분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체 도의원 정수를 현재처럼 45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상민기자

## 도의회 교섭단체 ‘행정개편 무산’ 책임론 공방 “전 정부 방기” vs “오 도정·민주당 탓”

제12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된 원인에는 윤석열 전 정권의 역할 부재도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간의 갈등 탓이라며 현 도정과 여권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집중했다.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제에 대해 “도민 공론화는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정무적 논의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오영훈 도정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지독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고, 주무 부처 장관 부재라는 행정 공백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끝내 찾아볼 수 없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분명히 공감하며,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포함된 만큼 차기 도정에서는 주민투표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현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차기 도정은)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숙의형 도민공론화 과정의 결과인 제주도 균형적 분할인 ‘3개 구역안’을 존중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민생 예산을 허비해 제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도민을 혼란에 빠지게까지 했다”고 민선 8기 도정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허무하게 날려버린 행정체제 개편 예산과 도민의 혈세, 도민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13, 14호

###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 사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도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택을 매입합니다.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업안내를 위한 사전공고임

#### ■ 준공형

[건령 15년 이내의 기존주택등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매입대상주택
  - 동별 일괄 매입 가능 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 이하
  - 건령 : 15년 이내 (사용승인일 '11.01.01 이후)
- 매입호수 및 금액

공급유형	매입물량	매입기준	매입상한금액/호
일반형	40호	전용면적 14~85㎡ 이하	129백만원이하
청년형	30호	(동지역 한정) 전용면적 14~85㎡ 이하	129백만원이하
신혼1형	30호	전용면적 36㎡~85㎡ 이하, 방 2개이상	171백만원이하

※ 매입물량 및 매입상한금액 등은 본 공고시 변동될 수 있음

#### ■ 약정·특화형

[건축예정인 주택을 사전 약정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매입대상주택
  - 동별 일괄 매입 가능 주택 18호 이상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5㎡ 이하
- 매입호수 및 금액

공급유형	매입물량	매입기준	매입상한금액/호
일반형	100호	전용면적 26~85㎡ 이하, 방 1개 이상(1.5층)	193백만원이하
고령자형	60호	전용면적 36~85㎡ 이하, 방 2개 이상	250백만원이하
다자녀형	100호	전용면적 46㎡~85㎡ 이하, 방 3개이상	300백만원이하
커뮤니티형	5호	전용면적 46㎡ 이상	400백만원이하

※ 매입물량 및 매입상한금액 등은 본 공고시 변동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사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www.jpdc.co.kr - 정보공개 - 공사소식 - 공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훑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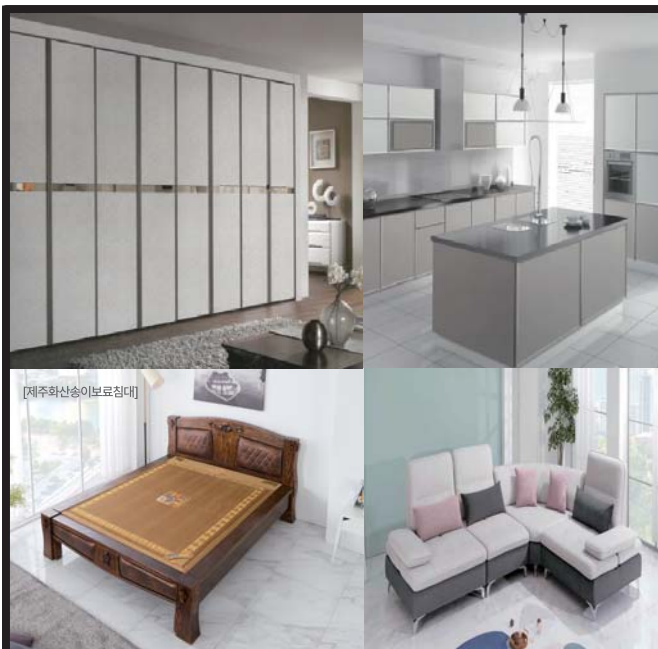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실내 토탈 인테리어/욕실/거실/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불박이장/침대/소파/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